metro

메트로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illegible] www.metroseoul.co.kr

이통3사 '합법적 공짜폰' 공세

이동통신 3사가 20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하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재개에 맞춰 삼성전자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갤럭시S4 액티브, 피처폰 SHW-A301S, LG전자 옵티머스 LTE3, G2, 옵티머스 G프로, 팬택 베가 아이언 등 단말기의 출고가를 2만7500~37만1800원 인하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제조사들과 협의해 단말기 7종의 출고가를 우선 인하, 20일부터 판매하고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 갤럭시S4, 갤럭시 윈, 갤럭시 그랜드1 등 4종에 대해서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출고가 인하로 보급형 휴대전화 대부분의 구입가격이 10만원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형 휴대전화 역시 시장에서 20만~3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역시 이날 옵티머스 G프로, G2, 베가 아이언 등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데 동참했다. 앞서 KT는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27일과 28일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의 출고가를 절반 가량 인하했다. 이어 지난 4일 팬택 베가 시크릿 업의 출고가도 낮췄다.

KT는 이 같은 출고가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단독 영업기간에 갤럭시S4 미니, 옵티머스GK, 아이폰5, 베가 시크릿 업 등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LG전자 3G 신규 스마트폰 'L70'도 20만원대의 가격에 내놓으며 25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유지했다. 영업정지 기간 15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긴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 10만명이 순증한 셈이다.

박 대통령 원전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열린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기념식에 참석, 만수르 부총리 겸 대통령실장 등 관계 및 한국 주요인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위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단말기 출고가 인하카드…공격 마케팅 나서

출시 제품 요금제 약정할인 땐 보급형 0원

KT 관계자는 "단독 영업기간 번호이동 고객 중 출고가 인하와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의 가입비중이 40%를 넘는다"며 "향후 삼성전자 갤럭시S4, 갤럭시S4 LTE-A(16·32GB), 갤럭시노트3, 갤럭시 그랜드 등 5종의 단말기도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활성화 기대

LG유플러스도 영업재개에 맞춰 LG Gx, G2, 옵티머스 G프로, 베가 아이언 등 4종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20일부터 적용했다.

현재 갤럭시S4 LTE-A(16G·32GB), 갤럭시S4, 갤럭시 노트3, 갤럭시 윈 등 5종도 출고가 인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출고가 인하금에 외에 추가로 가이드라인 내 보조금을 적용받으면 베가 아이언은 10만원대에, LG Gx와 옵티머스 G프로는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요금제에 따른 약정할인을 받으면 이동3사가 제공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대부분이 공짜폰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업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영향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가 그동안 얼어붙었던 통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시장 과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통과로 고객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합법적 공짜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출고가 인하 적용 제품이 기존 출시된 제품으로 제한된 만큼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등록된 외국인 100만명 돌파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등록 외국인 수가 101만20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단기체류자 36만9370명과 거소신고자 25만6509명을 합하면 전체 체류외국인은 163만9509명에 달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3%를 넘는 수준이다.

등록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무역경영(D-9) 등 체류 형태가 다양하다.

국가별로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등록 외국인 수는 ▲2003년 43만7954명 ▲2006년 63만1219명 ▲2009년 87만636명 ▲2012년 93만2983명 ▲2013년 98만592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윤다혜기자 yd@

지하철 화재 대피 어려워

감사원 "수도권 45개 역 피난로 부실…고속철 관리도 소홀"

수도권 지하철 45개 역의 승강장이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돼 있는 등 안전 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상대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지하철 역 중 압구정로데오 강남구청 공덕 서현 정부과천청사역 등 45개 역 승강장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됐다. 이 때문에 역사 안에서 화재나 테러 등이 발생할 때 승객들이 쉽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동식 피난계단 같은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경부고속철도 시험구간인 충남 오송읍 신동3교 등 4개 고량에 지진대비 보강공사를 하면서 품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공업체는 공단의 방치 속에 전수 품질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62개 지진격리받침 중 단 9개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채 공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민간 건설사와 865억원 규모의 '수도권고속철도 제8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설업계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터널 두께를 얇게 하도록 설계 변경을 신청하자 전문가 검증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 담합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분만 쌓는 공영방송 KBS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KBS가 침몰하고 있다.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도국 부장단의 일괄 사퇴와 KBS 기자협회의 제작거부로 방송이 파행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비교하는 발언으로 사임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 보도 개입을 폭로하며 길 사장의 사퇴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길 사장이 "발언이 과장·왜곡 됐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금의 KBS 사태는 세월의 식 결여로 빚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세월호를 떠올리게 한다. 청와대의 개입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추후 정확히 판명나야겠지만 KBS가 지금껏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세월호 사고 유족은 쌓인 분노를 김 전 보도국장의 발언을 계기로 터뜨렸고,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렸다. 길 사장은 이 때문이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에 선 청와대는 침묵으로 대응해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결백 증거 제시든 과오 인정이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지금 반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건 세월호 관계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KBS의 고위 책임자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 한명까지" 세월호 참사 35일째인 20일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경·'해피아' 관리들 총체적 부실"

여야 본회의서 비난 봇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정부의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사건 당일 오전 9시7분 최초 교신 이후 세월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교신이 끊어지는 9시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은 에어포켓 생성 가능성이 낮음에도 해수부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며 "에어포켓에 대한 믿음이 적극적 구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폐선 직전의 배를 들여와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선주, '해피아'라 불리는 전·현직 관리들, 우물쭈물하다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룸 담배도 7월부터 세금 물려

머금는 담배와 룸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오는 7월2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조현정기자

부산 황국형비뇨기과의원
국내 유일 KFDA승인 라이펀 음경확대술 저렴하고 안전성 확보 시술 간편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수술
● 전립선비대증 내시경 레이저 수술 - 당일 수술 후 퇴원, 보험적용
● 복합 음경확대수술, 길이 굵기 동시
- 진피지방판, 대체진피, 인조실, 실리콘관 삽입
● 주사를 이용한 음경확대술
- 벨라젠, 라이펀(KFDA승인), 아쿠아미드, 히알루론산액 주사
● 귀두확대술, 조루증수술 ● 발기부전 수술(전공음경해면체 삽입)
● 요로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 ● 음경비셀린 제거술
☎ (051) 866-8575
e-메디칼센터 7층/연산로타리 지하철역 5,7번출구
www.uro-dr.co.kr

9월 20일 시험대비 / 10주 완성
2013 신설 자격증
태양광발전기사(토요반)
(신재생에너지) 매주(토) 2시~7시 (5시간)
필기정규(10주) 개강 : 7월 12일
-50세이상 모든 재직근로자 교육비 환급(대기업포함)-

전기(산업)기사 기초정규반	6월2일~7월30일 (2개월)	10:00~12:50 19:20~22:10 1일 3시간	기초정규 월초보반 필기 4개월 동영상 무료 제공
건축전기 발송배전 기술사	현재 강의중	13:00~18:00 (매주 토요일)	기본서반 6개월 교육비 환급

부산전기학원 051)803-0803
http://www.busanjungi.co.kr

어린이의 꿈 담긴 '차일드 팟' 20일 오전 서울 중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마당에서 '차일드 팟(Child Pot)' 대형화분 제막식이 열렸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새싹 모양으로 형상화한 조형물인 '차일드 팟'은 새싹이 자라려면 햇볕과 물 등이 필요한 것처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나서서 위험요소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함정서 성추행 잇따라

장교 구속 – 함장 보직해임

해군 함정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됐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김민준기자 mikim8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경기경찰청장 등 사과

이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0시 10분께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정보형사들의 사찰 의혹에 대해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정보형사)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며 "(적발 당시)당황해 유족에게 신분을 숨긴 직원들은 잘못한 것으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이지 사찰이나 미행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산단원경찰서 구장회 서장도 6차례 고개를 숙여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안산단원서 소속 정보형사 2명은 전날 오후 7시 21분께 전남 진도에 회의차 내려가는 피해 가족대표단이 전북 고창군 한 휴게소에 저녁식사를 하러 들른 사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들을 알아본 한 유족에게 적발됐다.

/홍다혜기자 yuh8

유병언 영장심사도 불출석

금수원 강제진입 임박 – 구원파 신도 수백명과 대치중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000억원대 횡령·배임과 100억원대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관련 회의를 열고 구인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구인영장을 반납하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법원이 유씨의 잠적 가능성 등을 설명한 뒤 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16일에도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유씨는 현재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다.

검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000명을 동원해 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강제진입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역시 검찰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했다.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부산진구 해양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해양 관광 레저 전문인력양성과정 크루즈 요트마리나 전문인력양성과정

★ 교육비 전액무료! ★ 훈련비 지원! ★ 기업체 취업연계!

동의과학대학교에서 해양서비스 산업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부산지역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생 모집 : 2014년 6월 5일 까지
▶ 모집 대상 : 청년 · 미취업자만 지원가능 (1980년생 ~ 1999년생)
▶ 접수 방법 : 동의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문 의 : ☎ 051)860 - 3242~3 E-mail oopower2@dit.ac.kr

고용노동부 부산진구청 DIT 동의과학대학교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모집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오는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기업(기관)에서 해외비즈니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교류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소재 대학1~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15박16일간의 일정으로 후쿠오카시에 머물면서 △14일 후쿠오카시장 주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일본 후쿠오카 소재 업종별 대표기업, 종합상사, 방송국등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일본 전통문화 체험 현지 문화탐방 등의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www.bfa.or.kr) 혹은 이메일(jina0850@bfa.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 기준 80만원, 현지식비는 개인부담이며 그 외 기타 경비는 재단이 부담한다. 문의(051)668-7916

산복도로 축대벽 갤러리로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사상구 주례동 산복도로 옆 축대벽을 갤러리로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1억7천만원을 들여 주민과 학생 통행이 잦은 주례여중 사거리 도로변에 갤러리를 만든다.

축대 벽면에 타일 벽화 방식으로 길이 110m가량의 갤러리를 조성하며,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주례동 지역의 역사 유산인 냉정샘, 주례동의 과거와 현재 마을 전경, 사상팔경의 독특한 이미지, 주민들이 참여한 그림으로 벽화를 구성한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주민을 대상으로 갤러리 그림을 공모했더니 1천30여 점이 접수되는 등 주민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

동남아 환경·에너지 시장 잡아라

시, 하노이서 전시회 개최—국내기업 진출 기회 마련

부산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베트남 하노이 ICE 전시장에서 'ENTECH Hanoi 201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ENTECH)이 환경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최대전시회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들의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기업의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도국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 특별 전시회로 올해는 5개국 110개사 220개 부스가 참가해 신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 올해 6회째인 'ENTECH Hanoi 2014'는 국내에서 72개사 99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지난해 50개사 74개 부스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했다.

국내 전력, 발전, 풍력, 에너지절감, 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에너지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시는 올해 대한민국 5대 해외특별전시회로 선정된 이번 행사에 국비 1억5000만 원과 시비 1억 원을 투입했다.

또 국내 참가기업들에 대해서는 참가비의 약 70%, 운송비 등의 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초로 제1회 한국-베트남 환경에너지 협력포럼이 동시개최돼 한국 주요 기관과 베트남 기관 간의 상호 환경 에너지 산업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현지 홍보를 위해 Vietnam Plus, VTV1(공영방송사)등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언론사를 전시회에 초청한다.

이에 따라 전시회 홍보와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일대일 인터뷰와 취재를 집중 지원해 별도의 기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베트남 무역사무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지사무소, 베트남 한국대사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등과 긴밀한 협조로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ENTECH Hanoi 2013' 전시회를 통해 국내기업과 동남아시아 등 현지 바이어 667개사와 약 2억 5000 달러 가량의 수출상담과 4천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하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온 힘을 다해서 울산소방본부는 20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체력 평가를 진행했다. 소방관들이 온 힘을 다해 턱걸이를 당겨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 가입 어떻게

Q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절차는 근로자와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동의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시 개인형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합니다.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작성해 우편, 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해야한다. DC형의 경우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661-0075) 또는 홈페이지(http://pension.kcomwel.or.kr) 참조.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고용기회 확대 사업장 임금·시설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 채용,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하는 경우 △신성장동력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 또는 국내복귀제조업 △지역특화산업에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에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하균기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생 모집공고
- 해양플랜트 분야 채용예정자과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플랜트 전략 수립분야 미래를 함께 이끌어나갈 유능한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유치

부산시는 인디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이 음반발매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부산 유치를 계기로 지역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 영화·영상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국제 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등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과 앞서 유치한 콘텐츠 코리아 랩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시측은 내다봤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는 지역 최대 대학로이며 인디문화 중심지인 금정구 예술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다.

시는 연습실, 스튜디오, 공연장, 교육장 등 200평 넘는 규모의 음악창작소를 조성해 부산 지역 음악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인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록 음악의 메카' 부산 의 80~90년대 명품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유치로 재현 할 계획이다.

/장학균기자

오거돈 '시민대연합' 정책위 출범

여야 시장후보 캠프 정책 브레인 대거 참여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의 단일화 결단을 통해 힘을 얻은 오거돈 부산시장 무소속 후보의 시민연합캠프가 '시민대연합 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오거돈 시민연합캠프는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위원회 발족식 및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8대 분야 24개 과제 100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정책위원회 명단에는 당초 오 후보가 제안한 '부산시민대연합'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정책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제외한 여야 시장후보 캠프의 정책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해 향후 선거판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시민연합캠프는 "이번 정책위 발족은 시민연합캠프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무소속 오거돈 후보(왼쪽 네번째)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민대연합 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위원들과 서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발전과 변화를 염원하는 세력이 참여한 것"이라며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해 온 부산의 시정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부산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시민행복 제일도시 부산을 위한 약속'을 주요 정책으로 입안했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은 동북아 해양경제수도와 2천만 남해안시대를 핵심공약으로 삼고, 이를 실현키 위한 총 8대 분야 24개 과제 100선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가덕도 신공항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지부진한 가덕도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 일대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부산발전과 개혁을 위한 제반 세력의 공약을 집대성한 만큼 여야 후보캠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책들이 골고루 반영돼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안전도시' 분야에서는 고리 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전면 취소를 공약했고, '산업중흥도시' 분야에는 도심형 특화산업단지 육성 공약이 포함됐다.

'일자리 좋은일자리' 분야에는 대학생을 위한 주택인 '유스하우스(Youth House)' 설립 운영 지원 공약이 담겼다.

이밖에 여성을 위한 '24시간 돌봄시스템 확대', '건강도시 만들기로 시민에게 건강수명 3년 반환' 등과 같은 눈길이 가는 공약도 있다.

/장학균기자 jhk@metroseoul.co.kr

오염천 동천 환경·시설 정비

부산시가 도심 오염 하천인 동천의 환경 시설을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오염악취를 줄이려고 광무교 주변을 비롯해 동천 상류인 당감천과 전포천의 긴급 준설에 나선다.

오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 특별교부금 5억2000만원을 투입해 하천 퇴적물 4630㎥를 준설할 계획이다.

또 시비 39억원을 들여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부산진구 상공회의소 사이에 길이 50m, 폭 4~6m의 보행 전용교량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교량 디자인 등에 관한 용역을 한 뒤 11월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등하굣길 아동 안전지도 제작

부산 중구는 등·하굣길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작은 관내 2개 초등학교 협조로 지역 초등학생 60명이 참여해 진행된다. 아동안전지도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 500m 이내의 주변을 직접 돌아보며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지도에 반영해 제작된다.

나라사랑 태극기 투어 20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제3회 나라사랑 태극기 투어' 행사에 참가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시지부 회원 100명과 자전거동우회 150명 등이 출정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에 태극기를 달고 출발해 문현교차로, KBS삼거리, 수영교차로, 충렬사, 어린이대공원 등을 거쳐 5시간 동안 투어를 펼쳤다. /사진 보훈청 제공

물류동맥 부산항대교에 화물차 못 다닐수도

시 "교통체증 극심 땐 통행제한 검토"

항만물류의 동맥 역할을 해야 할 부산항대교에 정작 항만물동량 수송수단인 화물차가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항대교 개통(22일)을 앞두고 20일 오전 '부산항 대교 교통소통 대책'을 설명하면서 "남구와 영도구 등 양쪽 접속도로의 공기 지연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지난 19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통행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통행 자제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외부용역 결과 북항에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이용해 신항으로 이동할 화물차가 하루 600대 정도로 추정됐다"며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 한 대가 승용차 10대와 맞먹는 만큼 개통 후 교통량 추이를 봐가며 통행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또는 제한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관리청의 공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통행제한은 하지 않지만 극심한 체증이 빚어지면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교통수요량 예측 용역'을 통해 부산항대교에서 영도 쪽 연결도로를 지나 남항대교 방면으로 갈 화물차는 전체 통행량의 5% 정도인 하루 600대로 추정했다. 그 반대편도 하루 660대 정도다.

북항과 신항을 오가는 화물차는 그동안 북항~부두로~구덕터널~동서고가도로~신항 구간을 주로 이용했다. 부산항대교가 개통하면 거리면에서 기존 구간보다 훨씬 짧은 부산항대교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벚지루병 걸린 대화강대공원의 대숲 20일 울산시 중구 태화강대공원의 대다우숲에 서식하는 대나무가 벚지루병(일명 도깨비집병)에 걸렸다. 벚지루병은 잎이 가늘고 길게 연약하게 빗자루 모양으로 돋쳐 나오는 병이다. /연합뉴스

부·울·경 상장기업 60% 환율변동위험에 노출

부산·울산·경남지역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환율변동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2월에 결산하는 세 지역의 상장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환차손익 현황을 분석, 모두 1479억원의 환차익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들 가운데 환차익이 발생한 기업은 77개사(50.3%)로 그 규모는 2022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76개사(49.7%)은 총 543억원의 환차손을 봤다.

전체 조사대상 상장기업 가운데 영업활동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은 62개사로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나머지 60%인 91개사는 환율변동위험 관리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는 62개사는 지난해 외환거래에서 1140억원, 파생상품거래에서 385억원 등 모두 1525억원의 외환거래 차익을 냈다.

특히 외환거래에서 손실을 본 34개사 가운데 24개사는 환율변동위험 관리로 손실 규모를 줄이거나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은 91개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총 46억원의 환차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상장기업 가운데 환차익 규모 상위 3개사는 현대중공업(833억원), 한진중공업(182억원), 두산중공업(179억)으로 체계적인 환위험을 관리하는 대기업이었다.

2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검찰청 앞에서 한 여성이 군인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태국 군부 계엄령 선포

쿠데타 아니라지만 사실상 실권 장악… 재총선 연기될 듯

태국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군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의 계엄령 선포가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총리 대행이 이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계엄령 선포가 현 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쿠데타에 준한 것이라면 친정부 진영으로부터 큰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시위 사태가 격화함에 따라 치안 유지를 위해 선포됐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프라윳 찬-오차 육군 참모총장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총격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폭력이 계속되면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군이 나설 수 있다"며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지속되며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헌법재판소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권력남용으로 해임했다. 이후 반정부 시위대는 중립적인 인물을 선정해 새 과도 총리로 임명하겠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친정부 측은 선거로 구성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반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정부 시위대가 새 총리 임명과 과도 정부 구성을 강행하면 맞불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정국 위기가 깊어지면서 재총선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조기 총선이 무효가 돼 7월 20일 재총선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협성독서왕 선발을 위한 「독후감」 공모

- 공모기간 2014. 5. 12 ~ 8. 12(3개월간) ▶시상금 총 7천 5백만원
- 심 시 2014. 9. 01 ~ 9.19 → 입상자 발표 2014. 10. 2(목) → 시상(시상금 총 7천 5백만원)
- 시 상 식 2014. 10. 25(토) 오후 3시, 협성타워 13층 대연회장(부산 동구 중앙대로 360 / 수정동)
- 주 최 (재)협성문화재단 / 주관 (재)협성문화재단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후 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국제신문
- 접 수 처 (재)협성문화재단 또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9층 (재)협성문화재단 / 문의 전화 051-503-0341
    E-mail : hscf@hanmail.net ▶접수방법 : 이메일, 직접 방문, 우편 접수
  -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문의 전화 051-810-8291
    홈페이지 : siminlib.go.kr ▶접수방법 :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접수
- 응모대상
  - 독후감은 부산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및 일반 시민 모두가 해당되며,
  - 학교는 부산 소재 초 · 중 · 고교, 도서관은 부산에 소재하며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만 응모 대상
- 응모요령 및 유의사항 ▷ 반드시 (재)협성문화재단에서 지정한 도서를 읽고 1권에 대하여 독후감 제출
  - 200자 원고지 (초등 5매, 중 · 고생 8매, 대학 · 일반 12매) 또는 A4용지
    (글씨크기 12P, 초등 1매, 중 · 고생 2매, 대학 · 일반 2~3매)
  - 필수 기재사항 : 용지 첫째 장 우측 상단에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학교명, 학년, 반, 성명
    (대학 · 일반은 학교, 학년 반 미기재)
- 지정 도서 목록 ▷ (재)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총 31권의 도서 지정)
  - 초등생 : 노자니 할배(권오단), 정약용 이지비의 책읽는 밥상(김선희), 피카이아(권윤덕), 재판을 신청합니다(이영랑), 꿈꾸는 수렵도(권타오), 악플전쟁(이규희), 우리집에 외계인이 산다(김혜영), 검은 후드티 소년(이병승), 척척 접으면 뭐든지 된다(홍정욱), 메이드 인 차이나(셀리 그린들리),
  - 중 · 고생 : 잔스기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조숙경), 얼음이 빛나는 순간(이금이),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티격태격, 와우각상쟁(권오길), 운명의 주인 영혼의 선장(인디고서원), 내 이름은 윤비(윤비또나),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김정후), 해맑게 웃어줘 라오스(오동준), 우리 지속의 법칙(설훈), 공부와 열정(제임스 미크스 바크), 무옥이(이창숙)
  - 대학 · 일반 : 어담단어(박종현), 별명의 달인(구효서), 최인호의 인생(최인호), 아흔 즈음에(김열규),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구본준), 안나와디의 아이들(캐서린 부/강수정), 숭의 대화(정지아),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지그문트 바우만/안규남), 빨간도시 – 건축으로 목격한 대한민국(서현), 스무살엔 몰랐던 내한민국(이숙),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유복렬)
- 시상내역 ▷개인 53명, 학교 25개교, 도서관 20개관
  - 개 인 : 전체1위(대상) 1명 200만원, 대학 · 일반부 (협성문학상) 6명 총 480만원, 고등부 (내일의 작가상) 6명 총 390만원, 중학부 (내일의 작가상) 28명 총 1,260만원, 초등부 (작기 꿈나무상) 15명 650만원
  - 학 교 : 5개 고등학교 도서 총 340권, 12개 중학교 도서 총 1,320권, 8개 초등학교 도서 총 540권
  - 도서관 : 20개 도서관 도서 총 1,160권
- ▶응모요령 및 유의사항, 지정 도서 목록, 시상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재)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www.hscf.co.kr)에서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푸틴에 반항하는 우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하이 공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리는 도중 강풍에 우산이 뒤집히자 경호원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 한다. /AFP 연합뉴스

스모그 방지 '피에로 마스크'

metro HongKong

네티즌 "웃기게 생겼다"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시 교통경찰이 최첨단 스모그방지 도구를 착용해 화제다.

최근 중국은 심각한 스모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스자좡의 공기오염지수는 전국 1위다. 교통경찰은 매일 도로 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스모그 등의 유해 기체에 직접 노출돼 있다. 이에 베이징의 한 회사가 스자좡 교통경찰을 위해 총 10만 위안(약 1650만 원)에 달하는 공기정화기를 기부했다.

이 스모그방지용 공기정화기를 이용하면 미세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행인이나 운전자와 대화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 이 도구는 그런 문제가 없어 행정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기존 스모그방지 마스크와 달리 밀폐형으로, 좁은 공간에서 여과 면적을 최대로 넓혔다.

하지만 이 공기정화기에 큰 단점이 하나 있다. 마치 피에로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것. 많은 네티즌은 "교통경찰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웃기게 생겼다" "이런 경찰을 바라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겠냐"며 비웃었다.

/정리=조선미기자

황창규 회장 "융합형 기가 시대 연다"

20일 오전 황창규 KT 회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가토피아 시대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기가토피아 실현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월 27일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전면에 나서 KT의 향후 경영방침에 대해 공개했다.

황 회장은 20일 KT 광화문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무선이 통합된 기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T를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만들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KT가 제시한 기가토피아는 인간과 모든 사물이 기가 인프라로 연결되고 융합 서비스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활성화로 고객은 물론 산업, 국가 모두에게 편리하고 활기찬 환경과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는 세상을 말한다.

이우러 황 회장은 ▲스마트 에너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 관제 등 5개 분야를 5대 미래 융합 서비스로 선정하고 중점 육성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5대 미래 융합 서비스 육성을 통해 ICT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중소 벤처와의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기가토피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KT경제경영연구소는 향후 기가토피아를 통한 ICT 선순환으로 3만7000개의 일자리와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황 회장은 고객 최우선 경영으로 기술, 상품,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ICT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특별명예퇴직을 통해 83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빙점을 설했다"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삼성 출신 임원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 인사 원칙은 첫째도 전문성, 둘째도 전문성, 셋째도 전문성"이라며 "KT를 1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쓰라는 원칙에 변함 없니"고 설명했다.

이어 "45일간 고심해서 수백명의 인터뷰를 통해 뽑을 골랐다는 전문 인력들을 영입한 것이 지금 5명의 부문장들"이라며 "모두 KT 출신으로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도 없다. 항상 전문성과 글로벌 1등 KT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열사 재편 구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막상 KT 회장으로 와서 보니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면서 "5대 미래 융합서비스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와 KT미디어허브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따로 계열사가 존재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은 합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자두 더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계속되는 실적 악화와 관련해선 "과거 문제들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면서 내부 조직이 변하고 있다"며 "단독 영업기간에도 정도경영으로 25만명의 가입자를 유지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만큼 내년에는 더욱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역설했다.

/서예진기자 yj0483@metroseoul.co.kr

소주 3파전에 관련주 "취하네~"

무학 강세… MH에탄올·풍국주정도 두각

소주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류 제조업체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특히 소주 원재료를 만드는 주정업체의 고공행진이 눈에 띈다.

소주 시장에서는 주류 업종의 3대 상장사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무학 중에서 무학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무학은 3만8650원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무학이 2010년 7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직후 주가가 5000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년여 만에 6배 넘게 치솟았다.

무학과 더불어 MH에탄올, 풍국주정 등 주정업체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두 업체의 주가는 올들어 2.2배, 1.3배 오른 상태다.

시장에서는 소주 시장이 지역업체의 독과점 체제에서 전국망 체제로 바뀌고 저도주 계열이 늘어날 것이란 점에 기대감을 표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진로는 충청도에서 경상북도로 영역망을 확장하고 있고, 경남 기반의 무학은 오는 4분기 수도권 영업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상위 3사의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므로 업체간 경쟁 심화로 소주 소비량이 늘면 주정 수요가 동반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학의 저도주가 수도권에 상륙하면서 소주 시장 전반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정욱 NH농협증권 연구원은 "경쟁사들도 저도수를 내놓으면 소주 수요가 늘어날 뿐더러 원가 측면에서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이건희 회장 병세 호전

입원 9일만에 중환자실서 VIP실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병세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20일 자료를 내고, "지난 일요일(5월 18일) 설명드린 대로 이건희 회장은 모든 검사결과가 매우 안정적이고, 상태가 많이 호전돼 어제(5월 19일) 일반병실로 옮겼니"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밤 심근경색을 일으켜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또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와 진정 치료를 받아왔다.

저체온 치료는 인체조직에 혈류공급이 재개되면 활성화산소 등 조직이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체온을 32~33℃로 낮춰 세포 대사를 떨어지도록 해 뇌 장기 등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법이다. 진정치료는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일정 기간 수면상태에서 쉬게 하는 치료를 말한다.

의료진은 의식 회복을 서두르기보다 심장과 뇌가 회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진정치료에 전념해 왔다. 지난 18일 "모든 검사결과가 매우 안정적이고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며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하균기자 lexsh@

market index <20일>

지표	수치	변동
코스피	2011.21	(-3.98)
코스닥	542.96	(-3.93)
금리	2.85	(+0.01)
환율	1025.80	(+3.20)

뉴스&뉴스

피아제 시계 국내 첫 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오는 25일까지 스위스 시계 브랜드 피아제의 알티플라노 38mm 900P 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제공

금감원, 국민은행 정밀진단

금융당국이 내달 말 사상 처음으로 개별은행인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놓고 이사회 갈등이 커지자 지난 19일 은행검사국 등 검사역 7명을 급파해 특별 검사에 들어간 데 이어 내달 말 대규모 검사인력을 투입해 국민은행 전체에 대한 경영 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의 전체 분야에 대해 정밀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은행 전체를 정밀 점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선우기자

돈보다 근무지역이 중요

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 '근무지역'을 꼽았다.

20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구직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구직 시 가장 고려하는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근무지역'이라고 답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급여'보다 무려 16.5%p나 앞서는 수치다.

'직종'(16.8%), '업무'(11.2%), '하루 업무시간'(8%), '복지혜택'(5.7%), '경력기간'(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표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표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11

2005년 6월 창간 등록번호 서울 아 00000

"우리도 영업 재개됐어요" SK텔레콤은 20일 영업 재개를 맞아 T월드 신촌점에서 스타벅스 프로모션 행사를 열었다. 배우 이광수(왼쪽서 첫번째)와 김지원(왼쪽서 세번째)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왼쪽서 네번째)이 이날 1호 개통 고객에게 스타벅스를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하라

기업·우리은행… 관련 서비스 속속 강화

최근 원 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율이 급락하면 대기업보다 환율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환관리 어려움이 커지자 시중 은행들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무료 환리스크 관리시스템인 'IBK 헤지-메신저'를 이용하면 환위험관리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매매 월별 목표환율 산출은 물론 목표환율을 설정해 시장환율이 근접 또는 이탈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해 주기 때문에 기업별로 맞춤형 헤지 타이밍 관리가 가능하다.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기업고객이면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내려받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메신저는 2012년 출시돼 현재 230여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 인터넷FX선물환거래'도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의 실수요 목적 환위험관리 거래시스템으로서 은행에 나오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쉽고 편하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1500여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선물환의 경우 기업은행 전체 거래의 26.7%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와 지원을 위해 '환율 SOS 제도'를 시행한다. 단골을 내 핫라인을 설치해 환율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과의 실시간 상담 체제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장 경험이 풍부한 외환 전문가가 현재의 외환시장 동향, 향후 환율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품 등에 대해 상담한다.

찾아가는 연수와 1대 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외환 파생 아카데미를 개최해 환리스크 관리 방법, 수요 환헤지 상품에 대한 무료 연수를 실시한다. 기업에서 요청시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현황 컨설팅과 개별 기업에 적합한 1대 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환리스크 관리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골프·노래방 카드소비 곤두박질

세월호 참사 여파… 보험 승인은 증가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유흥·레저 활동 등 비필수재 카드소비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카드승인금액은 47조16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600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도 5.2%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난 4월 중 레저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세월호 발생 전인 15일까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했으나 16일을 기점으로 하반월 3.8%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일반음식점(13.4→8.4%)과 의류(5.4→4.3%), 골프장(17.2%→-2.4%), 레저타운(27.5%→-31.0%), 노래방(7.8%→-0.01%)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애도 분위기로 필수소비재가 아닌 업종에서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은 감소됐다"며 "소득요건 개선과 4월말 장금연휴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비자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여객선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6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에 그쳤다.

이는 교통관련업종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인 12.9%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4월 상반월 41.8%에서 하반월 -29.9%로 무려 71.7%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도서지역 여행관련 소비가 위축된 것.

반면 보험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조3200억원으로 상반월 -39.5%의 낮은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을 보이다가 하반월 35%로 상승 전환됐다.

이는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보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건수의 비중은 3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전체 카드결제에서 3번 중 1번 이상이 체크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뮤지션들의 숨결 느껴봐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유니버설뮤직 그룹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리즈코너 내에서 캡어스코에를 열고 퀸,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 영국 대표 뮤지션들의 음반, 도서, 의류 등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LG제습기 1000만대 판매

LG전자가 전세계 제습기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

LG전자는 1986년 제습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8일 기준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제습기 1000만대 판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다.

사업 초기부터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을 동시 공략한 결과 유로모니터 소매 제습기 판매 기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2002년 업계 최초 전자제어 제습기, 2004년 30ℓ 대용량 제품, 2009년 국내 최초 신발건조 호스 적용 등 시장선도 기술을 연이어 선보였다.

올해는 국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에어컨 브랜드인 '휘센'과 지난 30년간 에어컨에 적용해 온 인버터 기술을 제습기 제품에 확대 적용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등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태홍기자

프로게이머 은퇴하면 뭐 하나?

홍진호 예능계 접수 · 임요환 포커 선수 전향

전 스타 프로(SK)게이머 홍진호가 JTBC 새 예능 '크라임 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한때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던 프로게이머. 하지만 이들이 몸담고 있는 e스포츠 팀이 거듭 해체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프로게이머의 위상과 인기도 예전같지 않다.

그럼에도 홍진호와 같은 스타 프로게이머들이 방송계에서 맹활약하면서 세상 이들의 새로운 직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진호는 tvN의 토크쇼 '로맨스가 더 필요해', JTBC의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 씬' 등에서 입담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tvN의 추리 예능 '더 지니어스: 시즌 1'에서 우승하며 시청자들 사로잡았고 이후 예능 프로에 잇따라 캐스팅되면서 방송인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홍진호와 함께 부의 TV 나들이가 잦았던 임요환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SK텔레콤의 프로게임단 T1에서 감독을 지낸 임요환은 프로 포커 선수로 변신했다.

지난 1월 첫 세계 대회에서 8위를 차지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던 그는 지난 2월 1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시안 포커 투어(APT)' 사이드 이벤트 토너먼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두 번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임요환은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의 성공적인 이직을 선고했다.

김정민, 박태민 등은 온게임넷에서 e스포츠 경기 전문 해설가로 뛴 바 있으며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하스스톤' 리그에서도 해설을 하고 있다.

일부 프로게이머들은 게임 전문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SNS 플랫폼 아프리카TV는 프로게이머 출신의 BJ들을 새롭게 선발하고 화려한 게임 플레이와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게임 전문 방송을 곧 서비스한다.

윤용태, 김명운, 유하운, 김남훈 등 전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물론 1부게임단 제닉스스톰 소속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스타크래프트 1과 2, 리그오브레전드(LOL), 서든어택, 도타2 등 인기 e스포츠 종목을 주제로 방송을 한다.

이용자들은 프로게이머 BJ 독점 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식 리그나 특정 이벤트 외에는 만나보기 힘들었던 스타급 프로게이머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다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차성윤기자 zen@metroseoul.co.kr

통보만 하는 연봉협상

직장인 꼽은 전시행정 1위

협상 없이 통보로 이뤄지는 연봉 조정이 대표적인 사내 전시행정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20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보여주기 식의 규정과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9%가 '있다'고 답했다.

전시행정의 종류로는 '협상 없이 통보로 이뤄지는 연봉협상'(63.1%,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말 뿐인 정시퇴근 제도'(55.7%), '사용이 어려운 연차휴가'(53.6%), '개인감정이 섞인 인사고과'(42%), '허울뿐인 교육제도'(28.4%), '소수에게 돌아가는 복리후생제도'(27.1%), '목적 없는 워크숍'(2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시행정으로 꼽은 이유(복수응답)는 61.6%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51.3%), '규정은 있지만 사용 시 눈치를 줘서'(50%), '다들 불만족하고 있어서'(36.8%),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1.6%),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어서'(20.1%)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전시행정으로 인한 피해(복수응답)는 '애사심이나 신뢰도가 낮아졌다'(73.6%), '근무의욕 저하'(71.8%), '이직 및 퇴직 고민'(61.5%) 등으로 나타났다.

/박국렬기자 kml@metroseoul.co.kr

예쁘게 찍어주세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각종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RESTART 50, 성공적인 인생 2모작!

부산상공회의소

2014 장년취업인턴제 모집 안내

장년인턴 만 50세 이상 취업희망자

부산상공회의소가 일하고 싶은 50세 이상 취업희망자와 이와 함께할 채용기업을 모집합니다.

장년인턴 모집	미취업 상태의 만 50세 이상인 자 (2014년 현재 1964.12.31이전 출생자)
신 청 방 법	■ 상시접수 ■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bcci.or.kr/)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채용기업 모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제외대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고용자 고용비율 상위 3개업종 [기업 지원내용] 인턴기간(최대4개월) 약정임금의 50%지원(정규직 채용 시 6개월간 65만원 지원)
신 청 방 법	장년취업인턴제 사이트(http://www.work.go.kr/seniorIntern/) 접속 후 온라인 신청(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문의 및 안내처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인력지원센터 장년인턴 담당자 (전화 051-990-7073~75 팩스 051-990-7185) ■ 자세한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찾아오시는 길	범내골 로터리(지하철 1호선 범내골 역)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도보 5분 거리 위치(부산상공회의소 9층)

취업하려면 컴퓨터·스피치능력 키워라

전경련, 20~30대 직장인 조사… 77%가 "영어 도움 안된다"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직장인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스펙으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스피치능력, 업무자격증 등을 꼽았다.

전경련(회장 허창수)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들 기업의 20~30대 대졸 직장인 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컴퓨터활용능력(77.5%), 스피치능력(46.9%), 업무자격증(38.1%) 등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영어점수(23.0%), 해외유학경험(10.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경련이 지난해 4월 취업을 위한 스펙 조사에서 영어점수(69.2%), 자격증(64.5%), 학점관리(57.8%)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 능력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54.2%), 내부보고서/발표자료를 잘 만들 수 있어서(36.1%)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외국계 기업(73.5%)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공기업(59.8%), 금융기관(50.0%), 대기업(49.1%)의 직장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58.2%)이 남성(49.8%)보다 높았다.

스피치능력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이들은 '상사·외부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53.7%)', '업무협의 등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돼서(30.7%)',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11.0%)'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상사·외부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외국계 기업(66.7%) 직장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54.3%), 공기업(54.2%), 금융기관(23.1%) 순이었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으로 업무관련 자격증을 꼽은 이들은 컴퓨터관련 자격증(42.6%), 직무관련 자격증(39.7%), 제2외국어 자격증(12.1%) 등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교육·IT·유통·운송·숙박은 컴퓨터 관련이, 건설업·금융업·에너지·화학·섬유업종은 직무관련을 가장 선호했다. 업종별로 자격증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어점수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월의 조사와 비교해 취업준비자와의 '스펙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응답자의 69.2%가 취업을 위해 토익 등 영어점수를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어점수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도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53.9%)'가 가장 높았다. '영어점수가 높아도 실제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서(20.8%)', '영어가 필요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16.9%)' 순으로 조사됐다.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업무를 한다'는 응답자를 기업유형별로 보면 공기업(64.5%)이 가장 높았다. 대기업(49.2%), 금융기관(45.9%), 외국계 기업(30.8%) 순이었다. 또 남성(49.2%)보다 여성(58.5%)의 비율이 높았다.

/윤태균기자 kbgit@metroseoul.co.kr

삼성 스포츠 마케팅 삼성전자가 6월30일까지 전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는 거실응원계 필수품인 TV, 에어컨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S 골드에서 승리의 여름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삼성전자 제공

경제 5단체, '안전 대한민국' 성금 모금

경제계가 '안전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가 안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성금모금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 5단체장은 20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5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회장단은 이날 "최근 세월호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이 재구축돼야 하며, 경제계 차원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가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성금 모으기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노후설비 등 안전시설 점검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시역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입생·유형별 재난발생 대응매뉴얼의 제정·보급 ▲재난 예방과 대응을 잘하는 선진국 기업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연구 촉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업차원에서도 최고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제계는 모금된 성금의 일부를 사고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과 장학금 지원, 의료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삼성그룹주 시총, 닷새만에 25조 증가

전자·생명·물산 3곳 20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삼성그룹주들이 이건희(72) 회장의 입원에도 불구,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닷새 만에 25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7곳의 시총은 19일 현재 333조5277억원으로 이 회장의 입원 전날인 지난 9일(308조4167억원)보다 25조1110억원(8.14%)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력 계열사 3곳의 시총 증가액은 20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기간 133만9000원에서 144만8000원으로 오르면서 시총이 16조6448억원(8.46%) 늘어났다.

삼성물산은 6만65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9.7% 상승해 시총이 1조원 넘게 증가했고 삼성생명의 주가는 9만4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12.77% 올라 시총이 2조4000억원 늘었다.

호텔신라와 제일기획의 시총도 이 기간 각각 1805억원, 690억원 증가했다.

17개 삼장 계열사 중 14개사의 시총이 늘었다.

계열사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크레듀로 38.71%를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호 에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한 3세 경영체제를 지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력회사의 낮은 지분율과 향후 3세간 지분 정리, 중간금융지주 등을 감안하면 지주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지주체제 전환시 신규 순환출자, 자회사간 지분 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분 단순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인적분할 대상인 주력 회사의 자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

라이나생명 80세 가입도 OK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진단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비싼 어학연수 더 이상 가지 마라"

라이언Q 파고다어학원 강사 노하우

해외경험 없어도 영어 마스터 가능
해군참모총장 전담통역 경력이 증명
10개월 1000문장 익히면 입에서 술술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낭비입니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한이 맺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들려준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고개를 내젓기 마련이다. 초등학생까지 어학연수를 떠나는 요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공갈은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파고다어학원 라이언Q(본명 김태윤·32) 강사의 조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외 유학 경험이 전혀 없이 국내에서만 영어를 공부해 해군참모총장 전담 통역장교로 3년간 복무한 후 파고다에 입사한지 2년여 만에 '2014년 최우수강사'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여행 경험은 중학교 때 캐나다에서 21일 체류했던 것과 대학졸업여행으로 베트남에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 서울과학기술대 영어과에 진학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상 어학연수는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 '예수 클 수백번 봤더나 외국에서 영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국제파 영어 강사인 정철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 2014년 최우수 강사 선정

라이언Q 강사는 1년을 목표로 하루 15시간씩 영어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영어신문에서부터 미드 시청, 영자신문 해석, 영어 작문, 학원수업 등 계획표를 만들어 미친 듯이 매달렸다. 식사 시간은 물론 샤워하면서도 라디오를 통해 영어를 계속 청취했다. 6개월이 지나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영어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회의 통역 수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서울 인사동 등에서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며 어학연수 못지않은 살아있는 영어를 갈고 닦았다. 덕분에 유명 외국대학 출신을 물리치고 해군참모총장 전담 통역장교로 천안함 사태와 주요 한미 군사회의 통역을 담당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라이언Q 강사의 몰입공부를 따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30일 완성 귀와 입이 트여요' 등과 같은 깜짝 놀랄 만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의 경험을 되돌아봐도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실력이 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 3개월 영어단기과정으로 영어를 마스터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담당하고 있는 '영어 마스터되기 프로젝트, 마스터 1000문장(마현윤)' 강의를 10개월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미를 통해 영어 익혀야

라이언Q 강사는 영어를 무작정 공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충고했다. 예디럼 미드를 좋아한다면 '그레이 아나토미'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겨울왕국'으로 영어를 공부하라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인다면 영어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개월 과정인 제 수업을 끝까지 들은 학생들을 살펴보면 끈기는 물론 공부에서 재미를 찾은 경우입니다. 강의를 통해 1000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면 어느 환경에서도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막힘이 없죠. 어학연수에 현혹돼 돈은 물론 시간까지 낭비하지 말고 국내에서 재미와 끈기로 영어를 대한다면 누구나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 **라이언Q 강사의 영어 마스터 비법**
>
> 1. 큰 목소리를 내라 – 작은 목소리로는 절대 영어를 잘 할 수 없다. 어색하더라도 큰 목소리로 따라하다 보면 듣는 것까지 마스터할 수 있다.
> 2. 휴대전화를 멀리하라 – 영어 공부중에도 휴대전화를 습관적으로 만지작 거리는 학생들이 많다. 공부할 때만큼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 3. 복습은 기본 – 영어 실력을 쌓으려면 예습 보다는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복습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 4. 위기의식을 가져라 –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어 정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몰입해야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가죽공예, 취미 넘어 매력 일터

서승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가죽공예 ⑧

형과 '갑시자'에서 주인공 정우성이 들고 다니던 가방은 유명브랜드 가방일까.

"조인성 주연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최근 모노톤 인테리어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소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기성 제품으로 표현하기 힘든 작품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영화사·방송국 등으로부터 주문 요청이 종종 들어옵니다."

문현요(사진)미로아르떼강사는 다소 생소해 보이는 가죽 공예에 대해 "인식만 못할 뿐 우리 주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계기로 가죽공예에 입문하게 됐을까.

"원래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어느날 압구정 보세 가게에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적힌 수제가방을 접하게 됐는 데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당시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그가 하는 일은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 번,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재료가 주는 촉감을 온전히 느끼며 가방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다. 하지만 국내 가죽공예 시장은 너무 열악했다. 결국 발품을 팔기로 했다.

"품질 높은 가방을 만들고 싶었지만 정보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외국 서적, 동영상, 논문을 찾아보며 가죽, 가방의 역사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7개월을 보낸 후 서류가방을 만들었고 시행착오 끝에 2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20대 초반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취미로 가죽공예를 배우러 온다"며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는 30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덧붙였다.

그가 추구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100%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베지터블 가죽은 시간이 흐르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랍을 포함한 모든 재료도 가죽의 자연스러움, 멋스러움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sh@

채용박람회 외국계 기업 참여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지역 16개 관계기관, 고용우수·외국계 기관 등 200여 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1500여 명을 채용한다. /연합뉴스

영어말하기 시험 고민 이젠 끝!

허니비즈HRD '오픽열차' 눈길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픽 전문 교육 업체 허니비즈HRD(honeybizhrd.com)는 대학생·직장인들을 위한 오픽열차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프라인 교육 과정인 '오픽열차'는 고속열차처럼 학습자가 단기간에 목표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자체 제작 교재 '매직 스토리(Magic Story)'를 통해 학습자들이 최신 오픽 출제 유형을 익히고 실제 시험에서 접하게 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오픽열차 수료 후 정기 오픽 시험에서 목표 등급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받거나 원하는 등급을 얻을 때까지 다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엔제리너스커피, 차별화된 커피로 '인기몰이'

독특한 로스팅과 다양한 메뉴 등 신개념 커피로 주목

최근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커피업계에서는 원두의 품질과 로스팅 기법을 앞세운 차별화된 커피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수많은 커피전문점들 사이에서도 특히 신선한 원두와 차별화된 메뉴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퓨어로스팅 기법을 사용해 신선함을 살린 풍부한 향의 커피맛과 '스페셜 아메리카노' 등 특별한 커피 메뉴로 커피매니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엔제리너스커피의 첫번째 인기 비결은 최상급 원두와 차별화된 로스팅 공법으로 신선함을 살린 프리미엄급 커피 메뉴라는 것. 생두의 입고부터 로스팅된 원두의 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했으며 각 공정 및 유통과정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최상급의 원두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최적의 생육환경에서 자라 엄격하게 선별된 엔제리너스커피의 원두는 '퓨어로스팅 시스템'으로 로스팅해 달콤한 향기와 중후한 바디감, 다크 로스트의 산뜻한 신미와 조골릿 향을 지닌 엔제리너스만의 커피로 탄생한다.

이 기법은 공기 중에 원두를 가볍게 띄워 기계 안의 뜨거운 공기만으로 원두를 볶는 로스팅 방식으로 탄 맛이 적고 원두 고유의 아로마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매일 갓 볶아낸 원두는 전국 단위로 구축된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전국 엔제리너스 매장에 주 3회 이상 배송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신선함이 살아있는 엔제리너스커피를 즐길 수 있다.

또 엔제리너스커피는 최근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물과 커피농도를 조절해 마실 수 있는 신개념 커피인 '스페셜 아메리카노 2종'을 선보였다. 전면 미취탈 워터 '에비앙'과 깔끔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탄산수 '트레비'가 콜라보레이션을 해 트렌디함은 물론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페셜 아메리카노는 '키스 오브 엔젤'과 '키스 오브 트레비' 총 2종의 아이스 제품으로 구성됐다. 키스 오브 엔젤은 프랑스산 고급생수인 에비앙의 순수함, 키스 오브 트레비는 탄산수 트레비의 청량감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주문 시 진한 에스프레소 더블샷이 담긴 아이스컵과 에비앙 혹은 트레비를 별도로 제공해 취향에 따라 커피농도를 조절해 즐길 수 있다.

엔제리너스커피 관계자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추구하며 건강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해 세련된 커피를 즐기며 나만의 특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스페셜 아메리카노 제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스페셜 아메리카노 제품 군을 확대해 소비자의 고급화된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창철기자 sms@metroseoul.co.kr

'매운 라면' 열전…매운맛 TOP 10

맵게 더 맵게~기존제품은 리뉴얼까지 다양

최근 라면업계의 매운맛 경쟁이 심상치 않다.

강렬한 매운맛을 즐기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라면업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매운 라면을 출시하거나, 기존제품을 더 맵게 리뉴얼하는 등 매운 라면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매운 라면의 점유율은 전체 라면시장 대비 59.3%포인트로 라면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팔도는 지난 3월 비빔면류 제품 중에 가장 매운 '팔도쫄비빔면(2769 SHU)'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팔도비빔면'(357 SHU)보다 8배나 더 매운 제품이다. 지난해는 농심 진짜진짜 라면과 오뚜기 '열라면' 등이 더욱 맵게 리뉴얼됐다. 이처럼 매운 라면시장을 선점하려는 라면업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 출시된 라면 가운데 가장 매운 라면은 어떤 제품일까? 각 라면업계에서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팔도 측이 이를 1위에서 10위까지의 제품을 서열화했다.

매운맛 순위는 고추류에 포함된 캡사이신의 농도를 스코빌 단위로 계량해 표시한 스코빌지수(SHU, Scoville Heat Unit)를 사용했다. 청양고추의 경우 4000~1만 SHU, 한국의 보통 고추는 4000~7000 SHU로 알려져 있다.

8,557 · 5,930 · 5,013 · 4,404 · 4,000 · 3,960 · 3,037 · 2,769 · 2,700 · 2,588

조사 결과 팔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틈새라면빨계떡'이 8557 SHU로 청양고추에 버금가는 매움을 자랑하며 이 부분 왕좌에 올랐다. 이마트의 도전하바네로라면(5930 SHU)과 오뚜기 열라면(5013 SHU)이 각각 2, 3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는 ▲불닭볶음면(4404 SHU) ▲진짜진짜(4000 SHU) ▲하바네로짬뽕(3960 SHU) ▲남자라면(3037 SHU) ▲팔도쫄비빔면(2769 SHU) ▲신라면(2700 SHU) ▲늑닉볶음면(2588 SHU) 순이었다.

특히 국물 없는 라면시장의 섬장도 매운맛을 강조한 제품들이 끌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팔도쫄비빔면', '쏘나볶음면'이 매운 라면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한지은기자

식음료 업계, '누드 콘셉트' 제품 인기

시원함 강조 20~30대 젊은 층 공략 나서

식음료 업계가 여름철을 맞이해 거추장스러운 것을 빼내고 있다. 누드 디자인을 표방한 패키지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먼저 화려한 컬러의 보틀과 라벨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던 주류들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보틀의 색감이나 라벨 등을 배제시킨 누드 형태의 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20~30대 젊은 애주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위스키 '더 클래스'는 투명 보틀에 라벨을 과감히 뺀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매끄럽게 떨어진 투명한 형태의 보틀에서는 어느 한 요소 튀지 않는 색감으로 누드를 연상시키며 세련되고 젊은 느낌을 준다. 코카콜라 컨투어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시모어 파웰'의 디자이너 닐 허스트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라고 한다.

맥주 제품 가운데도 라벨 없는 디자인의 제품이 있다. 뉴질랜드 맥주 '엔지 퓨어 라거'는 라벨을 없애고 녹색병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 제품은 뉴질랜드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보리와 물로 만들었고 색은 맑고 투명한 황금색을 띤다. 적당한 양의 조밀한 거품에 강하지 않은 탄산이 깨끗한 맛을 낸다.

'간지아 피닌파리나' 와인도 라벨 없이 회사명만을 표기한 누드보틀 디자인의 제품이다. 자동차 페라리 디자인으로 유명한 피닌파리나 사가 작업했다. 이 외에도 '누드와인'이라 불리는 '셀라엘'이나 보드카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앱솔루트'도 누드보틀로 인기다.

주류뿐만 아니라 잼류 제품도 누드보틀이 등장했다. 복음자리 '수제123 베리&마말렝'은 투명한 유리병에 블루베리잼, 딸기잼, 유자마말레이드 3가지 잼을 한 병에 담아 만들었다. 층층이 쌓여진 각기 다른 종류의 잼이 고스란히 드러나 제품이 더욱 부각된다. 이 제품은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대전에서 특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영일기자

소년에서 남자로, 소녀에서 숙녀로

스무살 성년맞이 · 깔끔·풋풋함 연출 팁

은은한 색상에 튀지 않는 스타일 좋아

만 20세가 되는 해를 축하하며 성인으로 인정받는 성년의 날은 스물살 소년 소녀들에게 특별한 날이다. 성년이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가짐과 행동도 조금은 어른스럽게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스무살의 풋풋함과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고자 할 때는 은은한 파스텔 계열 색상이 가미된 재킷을 입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이 재킷은 성숙한 분위기를 내는 동시에 컬러재킷 특유의 단정함과 자유분방함을 연출할 수 있어 청바지, 티셔츠 등 캐주얼한 복장에도 어렵지 않게 매치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초여름 날씨에는 린넨 소재의 재킷을 입어 시원하게 연출하는 것도 좋다.

카라를 세워 차이나 카라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소매 안쪽 색상을 다르게 해 접어 입으면 포인트로 연출할 수 있다.

체크무늬 패턴이 적용된 컬러재킷도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좋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소년에서 남자로 스타일 변신을 하는 데는 정장만한 게 없다. 20대 초반 남성들은 슈트를 한 번 마련해두면 면접,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중요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두루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도가 높은 기본 클래식 슈트가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성의 경우, 갑자기 전혀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옷을 입는다면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어색해지기 마련이다. 과한 옷차림은 피하고 평소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거나 계절에 맞는 세련된 아이템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포인트 스타일링이 아직은 서툴다면 캐릭터 등이 가미된 비교적 단순한 것부터 손을 써보는 게 좋다.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니 가장 이 깔끔한 크롭 티셔츠로 실루엣을 강조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아직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덧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한 시기다. 환절기 유용한 아우터로는 가벼우면서 깔끔한 디자인에 여유있는 크기의 재킷이 좋다.

단색의 단순한 셔츠는 소매를 걷어 입을 경우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활력있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어 많은 여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품이다.

이번 시즌 주목받는 플라워 프린트는 화사하면서도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포인트 룩으로 좋다고 꾸준히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다.

특히 원피스는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아이템 하나만으로 손쉽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20살다운 섬세한 그러움을 연출하기에는 꽃 무늬가 적용된 화사한 원피스가 단연 손꼽히는 이유다.

/김학철기자 kimc0134@metroseoul.co.kr

비타민C, 간단히 보충하세요!

휴대·복용 편리한 동아제약 '비타그란' 인기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작용을 한다. 또 기미 주근깨 예방 및 피부미백,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며 면역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게다가 괴혈병, 결체조직의 이상, 빈혈, 골절,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인데 비타민이 100% 흡수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에 따라 하루에 500~1000㎎ 정도의 비타민C씩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습관 및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증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등을 꾸준히 먹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간편하고 쉽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 보충제가 각광받고 있다. 그중 동아제약의 비타그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정받은 제품으로 비타민C 분말, 정 제품과 고함량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분말은 1포당 비타민C 500㎎을 함유하고 있어 알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1정당 비타민C 100㎎으로 제조된 비타그란 정 제품은 씹거나 녹여 먹을 수 있다. 사과·포도·레몬·오렌지 등 네 가지 맛으로 제조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1정당 비타민C를 1000㎎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C 고함량 제품의 경우는 1일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봄철에는 반드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 비타그란은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복용이 편리해 다른한 봄을 이겨내는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음혜림기자

'보헤미안 룩'으로 가볍고 편하게

샌들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디테일 완성

어느덧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다.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긴 치마와 걸쳐 입은 티셔츠를 매치한 단순한 패션일지라도 멋스러운 샌들이나 액세서리 하나로 간단히 보헤미안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보헤미안 룩의 자유분방한 멋을 잘 살려주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는 흔히 술장식으로 알고있는 프린지 디테일이다.

올 시즌 다양한 브랜드에서 프린지 장식이 가미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슈즈 브랜드 캐터필라는 프린지 디테일과 가죽 매듭 장식이 돋보이는 재즈민 샌들을 최근 출시했다.

발등을 감싸는 프린지 장식이 발랄한 보헤미안 룩 연출에 좋고 고급 가죽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부드러우며 샌들 뒤쪽에 지퍼가 있어 신고 벗기 편하다.

샌들로 발끝 포인트를 살렸다면 손목에 포인트 액세서리를 매치해 룩을 완성해 보자.

주얼리 브랜드 몽그램이 올 시즌 선보인 레이어드 팔찌는 골드 메탈에 화려한 색상의 실매듭이 더해져 화사한 보헤미안 룩 연출에 도움을 준다. 시계 브랜드 클로이의 스트랩 시계는 화려한 플라워 패턴 장식이 눈길을 끈다.

/김학철기자 kimc0134@

부부의 날, 내 남편 '훈남' 만들어볼까

복숭아 뼈 드러나는 슬랙스 팬츠, 화려한 피케셔츠로 포인트

5월 21일 부부의 날만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담아 그 동안 내색하지 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멋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남편을 보며 아내들은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아내들은 내 남편을 훈남으로 변신시킬 패션 아이템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의 티셔츠와 복숭아 뼈가 드러나는 팬츠를 함께 입으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 벨트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면 활동적인 느낌을 더해 어려운 느낌의 남편을 만들 수 있다.

남편이 실용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린넨 재킷과 시원한 줄무늬 셔츠, 좋은 팬츠를 매치해 젊은 감각의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연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활용도가 좋은 피케 티셔츠도 남편들의 훈남 변신에 도움이 된다. 기능성 소재에 색감이 두드러진 셔츠는 편안하게 어디서나 입기 좋고 코디하기가 수월해 남편들이 애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김학철기자

단, 1회 섭취로 1일후 시들한 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파워엠 프리미엄골드
고급형 신제품 출시
자신있게3일
무료체험
효과없을시
환불!
力
한의사 한 형 희
남자를 위한 파워엠! 단, 한번만! 섭취해도
24시간후 시들한 남성이 확 바뀝니다!
한번 1회 섭취로
달라진 남성을 확인하세요!.
3일이면 당신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그 효과에
놀라셨습니까?
아직도 1회용
남성제품에
의존하십니까?
남성제품
더 이상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효과없는
제품에 속지마십시오!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가짜 비아그라제품도,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불법제품도 아닙니다
순수한 천연재료만으로 남자를 위해 연구개발하여 만든 안전한 제품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남성들은 당뇨,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시들한 20~80대 남성이 20대 남성으로 태어난다 단, 1회 섭취만으로도 놀라운 남성력 회복
단, 1회 섭취로 달라지는 남성! 3일후 강한남성으로 탄생!
파워엠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드셔본 분들의 입소문으로 확실한 안전성을 자부하기에
무료체험 3일을 실시하여 효과없을 시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 일반형 : 파워엠
▶ 고급형 : 파워엠 프리미엄 골드
확인해 보십시요!
파워엠 효과!
주문 및 문의전화 1600-6842
행복한 남성!
당일배송 됩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

우리집 '숨구멍' 철저하게 관리하자

공기 드나드는 통로 청결 유지 중요

우리 몸에도 공기를 책임지는 허파가 있듯이 집 안에도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 공기가 배출되는 숨구멍이 있다. 바로 주방 후드와 싱크대 배수구, 화장실 하수구 등이 가정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공기 통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요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유해물질 또는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세균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나 식중독, 노로 바이러스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주방 후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싱크대 또는 화장실 하수구를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방, 공기 오염도 가장 심해

주방은 가스레인지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집안에서 공기 오염도가 가장 심한 공간이다. 때문에 이런 유해물질을 바로 배출시킬 수 있는 주방 후드 사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방 후드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후드에 묻은 기름때가 조리 시 음식물 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주방 후드 전문 기업 하츠의 후드 '휴어'는 요리할 때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후드가 켜지고 알아서 풍량을 조절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바로 배출한다.

◆세균 번식하기 쉬운 싱크대

싱크대 배수구는 높은 습도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각종 세균, 미생물, 바이러스 등이 번식하기 쉬운 장소다. 따라서 거름망 배수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하지 않도록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크대 배수구는 망과 덮개들을 분리해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섞은 물로 청소하고 30분 후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간단하게 살균 청소를 할 수 있다. 또 음식물 처리기를 이용하면 음식 쓰레기가 부패하지 않고 악취 없는 처리가 가능하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하수구 오물

대부분 가정 내 화장실은 창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화장실 하수구 속은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기 및 세면대, 타일 주위에 오염 물질을 제거해 곰팡이 번식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변기를 청소할 때에는 변기시트의 부착부분, 변기 바닥과 타일의 경계면 등의 틈새에 낀 오염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먹다 남은 김빠진 콜라를 활용하면 좋다. 콜라를 오염된 부위에 뿌린 후 어느 정도 두었다가 솔이나 걸레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하수구에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온다면 하수구에 막힌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 피죤이 출시한 '배수관 세정제 드랩펑 프리미엄'은 막힌 곳의 오물을 분해하는 것은 물론 배수관의 악취제거, 살균 효과도 있다.

/이혜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치킨동아리가 선정한 최고 치킨집은?

다양한 치킨 정보를 소비자들과 공유하는 연세대 치킨동아리 '피닉스'는 최근 맥주 전문점 94street(94번가)를 연세대 근방의 '제일 맛있는 치킨 맛집'으로 선정했다.

'좋은 치킨이 좋은 대접을 받게 해주자'라는 모토로 탄생한 피닉스는 치킨집을 탐방하면서 '테이스팅 노트'를 통해 치킨집을 평가하고 있다. 94번가는 굽네치킨에서 만든 맥주전문점으로 피닉스는 '94번가의 치킨이 연세대 주변 치킨집 중 가장 맛있고 품질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94번가는 오븐에 구워 기름기를 뺀 '수제 핸터키 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자랑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94번가는 매월 2회 선릉직영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1644-9792)와 홈페이지(www.94st.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보청기 착용 연령대 낮아진다

최근 청소년 '소음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청각 기관의 장애로 발생하는 난청은 청력 저하 또는 손실된 상태를 말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귀를 혹사시킬 경우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 12세 이상 인구 중 15% 정도가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V나 핸드폰 통화 볼륨을 높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게 되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야 한다. 돌발성 난청이라면 약물을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난청이라면 청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보청기를 통해 청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덴마크 청각 솔루션 전문업체 오티콘보청기의 '네라(Nera)'는 최신 이니움(Inium) 칩셋이 탑재된 고급형 보청기로 초소형, 초절전, 향상된 메모리, 빠른 처리능력이 특징이다. 고객이 선호하는 소리를 선택하는 맞춤 조절이 가능하며 소리의 방향과 위치를 분별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케일', 웰빙 트렌드에 인기 상승

생으로 먹거나 즙으로 마시는 게 좋아

웰빙, 체질 개선 등의 건강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케일(kale)'이 인기 식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케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고의 채소'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평가할 만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케일은 채소 가운데 베타카로틴 성분 함량이 가장 많아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꼽힌다. 또 체질 개선의 제 1원소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비타민A, B1, B2, C, K, M, U 등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과 철분, 칼륨, 칼슘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칼로리 역시 100g에 16kcal에 불과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루이스 이그나로(Louis Ignarro) 노벨의학상 수상자는 장수의 비밀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케일로 꼽았다. 호주의 건강주스 전도사 조 크로스(Joe Cross)가 케일로 만든 주스를 통해 40kg 가량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도 했다.

케일은 열을 가하면 항암 효과가 있는 엽록소, 비타민C, 엽산 등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조리를 할 경우에는 5분 이상 익히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는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케일의 인기에 따라 케일로 만든 주스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전문점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로푸드(raw food) 셰프 경미니는 한남동에 다양한 로푸드와 함께 케일로 만든 주스와 요리를 만날 수 있는 '에너지 키친'을 오픈할 예정이다. 복합 문화 공간 카페 '알라카르테'에서는 케일을 주재료로 한 디톡스 음료 '리부팅 주스'를 판매 중이다.

직접 케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주서기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케일은 섬유질이 많아 주스로 만들기 힘들지만 잘 갈아서 과육을 걸러내 맑은 주스로 만들면 목 넘김이 좋아 마시기 좋다. 지난 4월 출시된 브레빌(breville)의 '스피드 주서'는 강력한 모터와 4만개의 미세필터를 통해 맑은 주스를 걸러내기 때문에 목 넘김이 좋은 케일 주스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illegible]기자

부부의 날, 애정지수 높이는 선물하세요

로맨틱 분위기·추억 떠올리는 제품 추천

5월 21일은 부부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인 21일, 공생의 반려자인 배우자의 취향에 맞는 선물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해 보자.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부부들만의 오붓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와인을 추천한다.

향초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을 들여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연애시절이나 결혼 후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 배우자와의 소중했던 추억을 선물할 수 있다.

세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외모가 변해가는 배우자를 위한 맞춤형 뷰티 아이템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하이모에서 판매 중인 '하이모 기프트 카드'는 가발은 물론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헤어케어 제품과 가발 관련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기프트카드는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는 배우자에게는 슬리밍 아이템을 선물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함께 통쾌해 주세요"

배우 이민영(38)이 SBS 아침극 '나만의 당신'으로 복귀에 성공했다. 총 120부작 중 절반 이상이 방영된 '나만의 당신'은 이민영이 8년 만에 선택한 지상파 드라마다. 작품은 연일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아침 드라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돌아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6년 배우 이찬과 결혼한 후 2주 만에 이혼했고 유산 분배와 폭행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단아함이 강점이었던 이민영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나만의 당신'으로 대중과 소통을 시작한 이민영을 20일 경기도 일산 SBS 제작센터에서 만났다.

8년 만에 지상파 복귀 데뷔 후 첫 복수극 연기 아주머니들 응원 큰 힘

SBS 아침드라마 '나만의 당신' 주연 이민영

◆ 이민영-고은정, 소녀같은 배우

드라마는 구두닦이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딸 고은정(이민영)이 이맘에 눈이 먼 강성재(송재희)가 일으킨 끔찍한 사고에 휘말린 뒤 역경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극중 이민영은 착하고 곱게 자란 고은정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시댁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구박 받으며 쫓겨나기까지 하는 인물이다. "유난히 고생스러웠던 장면이 많았어요. 시댁에서 버려지거나 강성재에게 수모를 당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는 앞서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 제작발표회에서 "나와 닮은 점이 많은 인물"이라며 "나 역시 3남매로 자랐고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배역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5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함께 연기 중인 배우 정성환과 송재희는 이민영이 고은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악연인 전 남편 강성재 역을 맡은 송재희는 "착하고 자상하다. 소녀 같고 여리다"며 "연기자로선 대선배지만 조언을 구하면 자상하게 잘 알려준다"고 했다.

작품에서 현재 남편으로 출연 중인 허준하 역의 정성환도 "낯가림이 심해서 상대 배우와 조심스럽게 지내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런데 이민영씨와는 극 초반부터 정말 편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연기 호흡을 자랑했다.

◆ 처음 맛본 복수극 통쾌

이민영은 '나만의 당신'이 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 드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진심을 담아 소감을 전했다.

"예전엔 작품을 해도 친구들이 '잘 본다' 정도로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의 전개를

물어보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궁금해 해요.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구경하던 아주머니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응원도 해주고 '통쾌하다'고 끝까지 기뻐해 주기도 하죠."

그는 이 같은 인기가 작가 덕분이라고 말했다.

"작가님이 대본을 늦게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배우들이 준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죠. 또 엄청난 사건들을 펼쳐 놓아도 하나의 정점을 향해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막장 드라마의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자극적인 건 도구일 뿐이에요. '나만의 당신'은 스릴러 멜로 액션·공포·코믹 등 여러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민영은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나만의 당신'은 활동 후 처음 선택한 복수극이다. 그는 "감회가 새롭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는 건 데뷔 후 처음"이라며 "도전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자극적인 내용이 많다. 그러나 일상에서 고은정의 복수를 보면서 함께 통쾌해 웃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양현석 10억 기부 재단설립

불우청소년·어린이 돕기

양현석(사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불우 청소년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사재 10억원을 기부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일 회사 창립 18주년을 맞아 양 대표의 숙원 사업인 비영리 재단법인 '무주 YG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어린이들을 적극 돕겠다는 양 대표의 강한 의지에 따라 재단이 출범하게 됐다.

'무주 YG재단'의 '무주(無主)'는 '미무름이 없다', '주인이 없다'는 뜻으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양 대표는 "이제서야 재단이 설립돼 기부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YG재단'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 최근 등기 완료됐다. 앞으로는 재단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양 대표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결손 가정 청소년과 어린이의 치료, 재활과 학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YG는 재단 설립 이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션·정혜영 부부의 꾸준한 자선 활동을 비롯해 2009년 빅뱅, 2NE1 등 소속 가수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한 사내 자선 프로그램인 'YG 위드' 캠페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심장병 환자를 돕는 '드림 기프트' 캠페인 지원 등을 해왔다.

/유순호기자

자유로운 여인 유부녀' 이효리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자유로운 여인의 매력을 발산했다. 그는 최근 여성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커밍스텝, 패션 매거진 그라치아와 화보 촬영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촬영한 이효리는 자유분방하고 트렌디한 패션과 강렬한 헤어크윈으로 특유의 섹시하고 당당한 매력을 드러냈다.

/김성봉기자

윤하-정준영

아이유-김창완

'썸'같은 듀엣 잘나가네…

솔로+그룹에서 솔로+솔로 조합 변화
윤하-정준영·아이유-김창완 입맞춤

윤하-정준영, 아이유-김창완.

그룹 시스타와 정기고의 '썸' 열풍 때문일까. 최근 가요계에 듀엣 바람이 불고 있다.

올 상반기 '썸'으로 음원 등을 휩쓴 소유와 정기고의 시너지 효과로 가요계에 듀엣 바람이 거세다. 지난 3월 남성 듀오 이천원이 발표한 데뷔 싱글 '뷰티풀'에는 에일리가 참여했다. 이어 다이나믹 듀오 최자와 김예림의 '라스트 신'을 발표하며 듀엣 열풍에 합류했다.

여기에 걸스데이 소진도 뮤직가수 크루셜스타의 싱글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의 피쳐링으로 참여해 주목받았다.

모두 솔로 가수와 그룹 멤버의 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음악적 색깔이 뚜렷한 솔로 가수들의 만남이 예고돼 주목받고 있다.

바로 여성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윤하와 '슈퍼스타K' 출신 가수 정준영의 만남이다.

가요계 단짝으로 알려진 윤하와 정준영은 오는 29일 듀엣곡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준영과 윤하가 발표하는 이번 듀엣 곡은 록 색채가 짙은 곡이다. 두 사람이 애정을 갖고 있는 장르인데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따뜻한 가사가 돋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렴구에 상반되게 더시는 정준영과 윤하의 목소리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깊은 감동을 줄 예정이다.

또 가수 아이유도 30년 대선배 김창완과의 듀엣곡 '너의 의미'를 공개해 주목된다. '너의 의미'는 한국 그룹사운드의 선구자인 밴드 '산울림'의 곡을 재해석했다. 아이유 버전의 '너의 의미'에는 산울림의 보컬이었던 김창완이 보컬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작업부터 피쳐링까지 곡 전반에 걸쳐 참여했다. 아이유는 지난 15일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를 발매했다. '너의 의미'를 비롯해 타이틀곡 '나의 옛날이야기', '꽃',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등 7곡이 수록돼 음원차트 줄세우기를 기록하며 '아이유 파워'를 과시했다.

/김성준기자 yw@metroseoul.co.kr

싸이·마룬파이브 상암 배틀

빌보드 라이벌 월드컵경기장서 공연

마룬파이브 / 싸이

빌보드 라이벌인 마룬파이브(왼쪽 사진)와 싸이(오른쪽)가 올 여름 국내 무대에 나란히 선다.

이들은 8월 9~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2014'에 출연한다.

마룬파이브는 감성적이고 세련된 음악 스타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5인조 록 밴드다. 이 밴드는 2002년 데뷔 앨범 수록곡 '디스 러브'를 2011년 '무브스 라이크 재거'를 빅히트 시켰다. 2012년에는 '원 모어 나이트'로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인기 경쟁을 벌였고, 싸이는 마룬파이브에 막혀 7주 연속 빌보드 2위에 머물렀다.

싸이는 이번 공연에서 80여분 간 단독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새 앨범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싸이는 지난해 4월 '젠틀맨'을 발표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같은 무대에서 국내 팬들과 만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2년 전 빌보드 정상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마룬파이브와 싸이가 다시 만나 어떤 무대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일 현대카드가 발표한 '시티브레이크' 1차 라인업에는 록 그룹 본조비의 유명 기타리스트 리치 샘보라의 이름도 올랐다. 그는 솔로 뮤지션으로 참가해 본조비의 히트곡과 다양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국내 뮤지션은 아직까 넘어 1차 라인업에 포함됐다. /유순호기자

부산시민회관 월요명화
30%할인쿠폰
영웅
주부와 함께하는 11시 월요영화
11:00

청약통장 없어도! 집이 있어도!

대한민국 최초 누구나 집-

인천 도화 서희스타힐스

인천 도화지구 4BL | 59㎡ / 74㎡ 총 520세대

문의 032) 862-9500

(주)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볼만한 '19금' 한국영화 몰려온다

톱스타·작품성으로 무장한 '인간중독' '우는 남자' 개봉

극장가에 볼만한 '19금' 한국영화가 몰려오고 있다.

송승헌 주연의 '인간중독'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를 대표하는 톱스타들이 출연한데다 작품성까지 갖춘 영화들이 속속 개봉돼 흥행 성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관객을 찾는 19금 기대작은 '도희야'(22일 개봉)다. 바닷가 마을에 좌천돼 내려온 파출소장 영남(배두나)이 폭행에 홀로 노출된 14세 소녀 도희(김새론)와 만나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다.

국내에선 폭력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제67회 칸 영화제의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되는 등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개봉 전부터 영화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는 남자'(다음달 4일 개봉)는 한국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역대 19금 영화 흥행 성적 3위에 오른 원빈 주연의 '아저씨'를 연출한 이정범 감독의 차기작이다. 전작에서 원빈과 호흡을 맞췄던 이 감독이 이번에는 장동건과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킬러 곤(장동건)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목표물 모경(김민희)을 만나고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제작진은 20일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한국에서 표현된 적 없는 리얼한 총기 액션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하이힐'(다음달 개봉)은 19금 느와르를 표방했다. 내면의 여성적인 자아로 남몰래 고뇌하는 강력계 형사 지욱(차승원)이 운명을 뒤바꿀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충무로 대표 스토리텔러인 장진 감독의 느와르 도전작이다. 차승원이 극중 여장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역대 19금 영화 흥행 1~4위는 '친구'(818만 명), '타짜'(684만명), '아저씨'(622만명), '추격자'(507만명)이다.

/박진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군도' 하정우 극과 극 매력

백정에서 의적으로 거듭나는 역할 열연

배우 하정우가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에서 극과 극의 매력을 동시에 선보인다.

하정우는 극중 단순무식하고 힘센 백정 돌무치(사진 왼쪽)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의적의 쌍칼 도치(오른쪽)로 거듭나는 역할을 맡았다.

돌무치는 소, 돼지를 잡아 고기를 양반들 집에 대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백정이다. 양반은 물론 양민들에게까지 천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당연히 여긴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후 의적 도치로 거듭나고 쌍칼을 휘두르며 양반들을 두렵게 한다.

하정우는 외모와 분위기에서 돌무치와 도치를 차별화했다. 돌무치일 때는 더벅머리를 한 채 납작 조아리는 연기를 펼쳤고, 도치일 때는 화상 자국이 두렷한 민머리를 한 채 강렬한 눈빛을 쏘았다.

'군도'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활극으로 7월 23일 개봉한다. 하정우를 비롯해 강동원, 이성민, 조진웅, 마동석, 정만식, 김성균, 이경영 등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박진영기자

배두나·짐 스터게스 열애 인정

칸 영화제 '도희야' 상영회서 다정한 모습 포착

배우 배두나가 할리우드 배우 짐 스터게스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배두나는 20일 프랑스 칸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파빌리온 부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짐 스터게스는 남자친구다"라고 밝혔다.

이전에 소속사가 열애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친한 친구라는 말은 전 배나지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친구(짐 스터게스)가 '도희야'를 보고 많이 감동했던 것 같다. 세 배우 다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영화에 대한 칭찬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짐 스터게스가 19일 칸 드뷔시 극장에서 열린 영화 '도희야' 공식상영회에 깜짝 등장해 배두나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배두나는 짐 스터게스와 손을 잡고 인사했고, 나란히 앉아 영화를 감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호흡을 맞춘 뒤 열애설에 휩싸였다.

/박진영기자

짐 스터게스(오른쪽)가 '도희야' 시사회에서 배두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우림·김예림 '뮤직매터스' 출연

亞 최대 음악마켓 K-팝 쇼케이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3일 아시아 최대 음악마켓인 '뮤직매터스'에서 'K-팝 나이트 아웃'을 개최한다.

2006년 싱가포르에서 창설된 '뮤직매터스'는 유럽 최대 음악마켓인 미뎀, 북미 최대 음악마켓인 SXSW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마켓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음반·공연 관계자와 뮤지션 등이 컨퍼런스와 쇼케이스에 참석하는 'K-팝 나이트 아웃'은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는 자우림과 데이브레이크 등 실력파 밴드를 비롯해 대형 신인 김예림, 올해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에 초청받은 술탄오브더디스코, 3인조 록 그룹 아시안체어샷 등 5개 팀이 참가한다.

자우림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쇼케이스는 전 세계 음악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알리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며 "유튜브, 대형기획사 중심의 해외 사장 개척을 넘어 쇼케이스를 활용해 K-팝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박지성 축구 고향서 마무리

에인트호번 선수로 수원서 마지막 경기

'영원한 캡틴' 박지성(33·PSV 아인트호벤)이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그의 축구 고향인 수원에서다.

에인트호번은 22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의 명가 수원 삼성과 친선전을 갖는다. 24일 이어지는 경남FC와의 두 번째 친선전까지 끝나면 박지성이 클럽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6월과 7월 박지성이 주최하는 자선경기가 열리지만, 프로 선수로서 갖는 고별 무대는 이번 두 경기가 마지막이다.

특히 수원은 그가 축구 선수로 대성할 기틀을 다진 곳이어서 감회가 새롭다. 박지성은 서울 태생이지만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수원 세류초등학교와 화성 안용중학교, 수원공고를 거치며 기본기를 갈고 닦았다.

박지성은 11년 만에 마지막으로 국내 팬들 앞에서 뛰는 무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각오다. 그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에인트호번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다. 11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상준기자

메시 세계 축구계 가장 비싼 몸

연봉 조정 280억원으로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7·사진)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축구 스타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수정된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것을 밝히게 돼 기쁘다"고 20일 밝혔다. 애초 메시는 2017~2018시즌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기로 했다. 이번 계약 기간은 수정하지 않고 연봉만 조정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이제 연봉 2000만 유로(약 280억원)를 받는다. 원 계약에서는 연봉이 1300만 유로(약 18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메시는 세계 최고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가 됐다. 이전까지 최고 연봉자는 1700만 유로(약 238억원)를 받는다고 알려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였다.

/장상준기자

프로야구 전적 20일

■포항

롯데	000	000	002	2
삼성	001	032	01X	7

승 = 윤성환(3승 1패) 패 = 송승준(0승 7패) 홈런 = 박석민 3호(3회1점·삼성)

■목동

한화	000	010	000	1
넥센	010	110	00X	3

승 = 하영민(3승 1패) 패 = 송창현(1승 2패) 세 = 손승락 홈런 = 박병호 16, 17호(2회1점, 5회1점·넥센)

■광주

LG	001	003	300	7
KIA	010	050	22X	10

승 = 김진우 패 = 임정우 홈런 = 정성훈 4호(3회1점·LG) 나지완 8호(5회3점·KIA)

■마산

SK	100	000	010	2
NC	010	004	03X	8

승 = 이재학 패 = 채병용 홈런 = 김강민 7호(1회1점·SK) 이종욱 5호(6회3점·NC)

"홍 감독, 단디 하이소~"

역대 월드컵 사령탑, 브라질 대표팀 응원 메시지

역대 월드컵을 수놓았던 사령탑들이 브라질에서 대표팀의 선전을 확신했다.

김정남·이회택·김호·차범근·허정무·조광래 전 감독과 홍명보 현 감독은 20일 파주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오찬행사에 참석했다. 역대 대표팀 감독들은 "감독의 자신감이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홍 감독이 자신 있게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응원을 보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한 김정남 감독은 "많이 발전했다. 지금 대표팀은 강호들과 충분히 싸울 만한 전력을 가졌다. 16강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회택 감독은 "홍 감독은 항상 운을 가지고 다니는 사나이다. 마지막 점검과 준비를 잘해서 자국이 어려울 때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자를 응원했다.

이 감독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 전까지 부상을 조심하는 것이다. 최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감독에 맞설 전략을 조언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대표팀을 맡았던 김호 감독은 "우리 선수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수비 전환이 늦다는 점이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전진 압박이 상당히 빠르다"며 "전방에서 5~10m씩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 2m라도 저연시켜 주면 수비가 정돈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범근 감독은 동메달을 획득했던 2012 런던 올림픽에서와 같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광래 감독은 "유럽에서 경험을 갖춘 선수가 많아 홍 감독이 요구하는 경기 운영에 잘 적응할 것이다. 홍 감독, 단디 하이소"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룬 허정무 감독은 "역대 대표팀 사상 가장 강력한 미드필드진이다. 공수 세트피스를 보완하고 슈팅을 가다듬는다면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배들의 격려를 받고 "선배 감독님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후배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명심해서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역대 월드컵대표팀 – 감독 초청 오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역대 월드컵대표팀 감독들이 20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했다. 왼쪽부터 차범근, 김정남 전 감독, 정 회장, 홍 감독, 이회택, 김호, 허정무, 조광래 전 감독. /연합뉴스

무너진 마운드… "내가 일으킨다"

류현진 몸상태 최상 다저스 선발 공헌 자신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복귀전인 뉴욕 메츠전을 앞두고 몸 상태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류현진은 20일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을 통해 "추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다"며 "부상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어깨 운동이 필요한 것뿐이다.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공을 던지면서 어떤 한계도 없다"고 자신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을 마친 뒤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휴식에 들어갔고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이 빠진 LA 선발진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류현진 대신 선발진에 합류한 폴 마홀름은 올시즌 1승 4패, 평균자책점 5.40으로 부진했다. 특히 류현진 대신 선발로 나선 5월 3경기에서는 승리 없이 2패만을 떠안았고 평균자책점도 6.46이나 되는 등 불안했다.

류현진은 "부상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이 무너진 것을 느꼈다"며 "이제 내가 돌아왔다. 팀에 공헌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한편 부상을 털어낸 류현진은 오는 22일 뉴욕 메츠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복귀전을 치른다.

/장상준기자 [illegible]